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한국 고용률, OECD 평균 하회
- OPEC, 日 원유 생산량 100만 배럴 감산 결정

경영 노트

- 역사에서 배우는 영웅들의 리더십

사회 트렌드

- 세계화 지수의 음영
- 한국형 장수 비결

저널 브리프

- 북핵실험으로 경기 부양책 실시 가능성 고조

洗心錄

- 성공한 사람은 SQ가 높다

□ 한국 고용률, OECD 평균 하회

- 2005년 OECD 통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고용률은 63.7%로 OECD 평균 65.5%에 크게 미치지 못함 (30개 회원국들중 25위를 차지)
 - 반면 실업률은 3.9% (OECD 평균 6.7%)로 아이슬란드 멕시코 등과 더불어 3%대의 안정적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률이란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모두 포함한 생산가능인구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취업률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자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함
 - 최근 고용률과 실업률의 불일치성은 저성장 장기화로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크게 약화되어 구직 단념자와 같은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증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 2007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하락할 것으로 보여, 대기업, 금융 기관과 같은 좋은 일자리 감소에 따르는 구직 단념자 확대로 고용률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OPEC, 日 원유 생산량 100만 배럴 감산 결정

- OPEC (석유수출국기구,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은 국제 유가의 하락 추세를 억제하기 위하여, 현재 一日 생산량 상한선 2,800만 배럴 (실제 2,750만 배럴로 추정)에서 100만 배럴을 감축할 계획임
 - 국제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10월 19일 현재 배럴당 56.86달러로 지난 8월 8일의 최고가인 72.16달러보다 약 26.9%가 급락한 상황임
 - 한편 미국의 10월 13일 기준 휘발유 재고가 전주대비 520만 배럴 감소한 2억 1,020만 배럴을 기록하고 있어, 수급 불안에 따르는 국제 유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
- OPEC은 감산 조치 이후 국제 유가 하락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12월 총회에서 추가 감산 결정도 가능함을 언급하고 있어, 향후 국제 유가가 재반등할 것으로 판단됨

□ 역사에서 배우는 영웅들의 리더십

- (배경) 최근 ‘주몽’, ‘연개소문’, ‘대조영’ 등 고구려 역사 TV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면서 드라마 속 영웅들의 리더십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영웅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리더십으로 건국 과정에서부터 외세 침략 극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기극복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임
 - 이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영자들에게 상황에 따라 필요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함
- (리더십 유형) 주몽은 화합형, 광개토대왕은 도전형, 을지문덕은 전략형, 연개소문은 권위형, 대조영은 비전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주몽-화합형) 국가 창업 과정에서 재주와 지략을 핵심역량으로 기존 세력과 연합하고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등 통합과 포용을 중시함
 - (광개토대왕-도전형) 전술, 전략, 용병 등 군사적 능력과 글로벌적 마인드를 기반으로 영토 확대에 도전하여 고구려를 강대국으로 만들
 - (을지문덕-전략형) 적진에 홀로 들어가는 대담성과 물막이를 이용한 창의성으로 수나라의 30만 대군을 물리쳐 국가를 위기에서 구함
 - (연개소문-권위형) 강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천리장성 구축과 안시성 전투를 통해 당나라 침략을 격퇴시키고 고구려의 자주성을 지킴
 - (대조영-비전형) 탁월한 국제 외교력을 기반으로 돌궐, 일본, 신라와 친교를 맺고 당과 교류함으로써 고구려의 정통성을 계승함
- (시사점) 급변하는 기업 환경을 고려할 때, 기업 성장의 단계별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리더십과 역량 발휘가 요구됨
 - 고구려 역사를 살펴볼 때 주몽은 개국기에, 광개토대왕은 성장기에, 을지문덕은 성숙기에, 연개소문은 혼란기에 나타난 영웅들임
 - 영웅들의 리더십을 기업 환경에 적용해 보면 도입기는 포용과 비전이, 성장기에는 도전심이, 성숙기에는 창의성이, 혼란기에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연개소문과 같은 강한 카리스마가 역으로 고구려 멸망의 원인이 된 것처럼 기업을 쇠퇴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중시해야 할 것임

□ 세계화 지수의 음영

- 16일 발표된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포린폴리시>의 조사에 의하면 올해 우리 나라의 세계화 지수는 29위로 작년보다 한 단계 하락함
 - 세계 62개 국 중 한국은 인터넷 이용자(2위), 인터넷 호스트(13위), 기술(19위) 분야에서는 상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직접투자(41위), 인력(39위)에서는 하위에 랭크됨에 따라 세계화의 길이 쉽지 않음을 드러냄
 - 세계화 지수에서 1위는 싱가포르가 작년에 이어 차지했으며, 스위스, 미국, 아일랜드, 덴마크 순임
- 반면 같은 날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세계화가 초래한 ‘국경 없는 노동시장’은 서구 근로자들을 ‘소수’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난함
 - 세계화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25년새 20배 증가하였고, 자본 이동에 따라 일자리도 인도, 중국으로 옮겨가면서 고임금의 서구 노동자들이 느끼는 직업 불안정성은 가속화되고 있음
 - 현재 1,880만 명의 유럽의 실업자는 하루 3달러 이하를 받는 근로자가 전 세계적으로 15억 명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향후 더욱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한국형 장수 비결

- 한국 장수인들의 3가지 특징은 충분하게 자는 것, 채소와 된장, 두부 등을 많이 먹을 것, 끼니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임
 - 국내 최초로 이루어진 연구 결과로, 외국 장수인들의 연구에서는 요구르트나 해조류 등을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리 나라는 항산화 물질이 많은 된장국·채소·나물 등의 섭취가 많은 것이 특징임
- 음주 흡연을 삼가고 적절한 신체적 활동을 한다는 점은 다른 나라 장수인들과 큰 차이가 없지만 매끼 일정 시간에 일정량의 식사를 하는 것은 우리 나라만의 두드러진 특징임
 - “식사가 즐겁다”고 대답한 경우가 85.7%로, 가족과 함께 매일 세 끼씩 규칙적으로 즐겁게 식사하는 것이 장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북핵 실험으로 경기부양책 실시 가능성 고조*

■ ('인위적 경기부양' 실시 가시화) 북핵 실험에 의한 국내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재정 지출 확대 및 금리 인하를 통한 참여정부의 '인위적 경기부양' 정책 실시가 예상되고 있음

- (경기부양책 기조로 전환) 북핵 실험 이후 국내 경제의 급냉 가능성이 고조될 경우, 경기부양책으로 정책 기조가 전환될 수 있음

· 국내 경기 급냉 가능성: UN의 강경 제재와 북한의 추가적 도발 등으로 북핵 사태가 악화되면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지고, 국내 경기는 급냉할 것으로 예상됨

· 경기부양의 정책 기조로 전환: '인위적 경기부양'은 추후에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무리한 정책이라며 비판하던 정부가 국내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의 실행을 적극적으로 검토

· 재정 지출 확대: 정부가 가장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공공건설사업 등을 늘려 내수를 진작시키는 방안 강구

· 금리 인하: 금리를 인하하여 투자 및 소비 증가를 유도하는 방안을 한국은행과 적극 협의

- (감세와 부동산 규제 완화 가능성 낮음) 감세 정책은 오랜 시간 후에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므로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부동산 규제 완화는 경기부양책의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 놓고 있음

· 감세 정책 배제: 감세는 간접적인 부양 조치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내수 부진으로 인한 세금 수입 감소가 예상되므로 검토하지 않을 방침임

· 부동산 규제 지속: 참여 정부의 최우선 정책 중 하나인 부동산 규제 정책 완화는 경기부양책의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 놓고 있음

■ (과제) 북핵 위기로 내수가 위축되고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기부양책의 실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투자와 소비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규제 완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 이 글은 『한경 비즈니스』(2006.10.23)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성공한 사람은 SQ가 높다

왜 학교 우등생이 사회에서는 성공하지 못할까?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 다니엘 골만(Daniel Goleman)은 SQ(Social Intelligence Quotient, 사회지능지수)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한마디로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SQ가 높다는 것이다. SQ란 좋은 성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긍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다루며, 사회(조직)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인간관계를 조화롭게 생산적인 것으로 이끌어 가는 것을 말한다. 성공하려면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는 SQ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럼 어떤 부류가 SQ가 저능한 인간형인가? 한마디로 자기중심적이며 공격적이고 냉정한 사람들이다. 골만은 이들을 어둠의 세 유형이라 부른다.

첫째는 나르시시스형 인간이다. 이들은 ‘타인은 나를 찬양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다.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무조건 밀어붙이고 본다. 사랑받기보다는 존경받기를 원하며, 비판에 귀기울기보다는 자신과 같은 의견에만 관심을 보인다.

둘째는 마키아벨리형 인간이다. 이들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믿는다. 상사와 고객에게는 최선을 다한다.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나 일단 자기 사무실로 돌아오면 폭군이 된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부속품쯤으로 생각한다.

셋째는 사이코패스형 인간이다. 이들은 ‘타인은 사물일 뿐이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은 늘 정당하다고 믿는다. 이들 사전에 ‘후회’란 존재하지 않는다. 타인이 겪게 될 감정적 고통이나 정서적 상처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관심하다.

이들 어둠의 유형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SQ지만 또한 이런 부류의 폭군들과 잘 어우러져 살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SQ다. SQ란 상대방의 감정과 의도를 읽고 ‘관계의 심리학’을 늘 고려할 줄 아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제대로 사랑하고 싶다면, 행복하고 싶다면 SQ를 높여야 하지 않을까.

“타협이란 하나의 케이크를 서로가 자기 것이 큰 것처럼 보이도록 기술적으로 가르는 예술이다.”

- 아하드 -